

8 기획



'GS리테일MD전문가과정' 강좌에서 GS리테일 실무자에게 선정된 제품을 기획한 학생이 개발 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실전형 취업 수업, 학생 경쟁력 키운다

리테일 · 금융 전문 강화, 학생 반응도 좋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 ① 높아진 코로나학번 취업 문턱
- ② 우리학교 취업프로그램
- ③ 직접 찾아가본 취 · 창업스쿨

지난 회차에서는 미래인재센터에서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목소리를 들어봤다. 28개 취 · 창업스쿨 강좌 중 기업과의 MOU를 체결한 'GS리테일 MD전문가과정'과 학생 강의평 만점인 '금융권취업전략' 강의실을 찾았다. 또한 서류 · 면접 실전 준비반 'JSC' 현장도 찾았다.

GS리테일 MD전문가과정 수강이 곧 취업 경쟁력으로

우리학교는 2023년 7월, 삼양식품과 산학협력을 맺어 취업스쿨 '삼양식품글로벌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기에는 GS리테일이 전문가과정 강화를 진행 중이다.

'GS리테일MD전문가과정' 강좌가 열린 네오관 강의실을 찾았다. 교단에는 교수가 아닌 현직 GS리테일 MD가 서 있었다.

강좌를 담당하는 GS리테일 정구민 매니저는 학생 상품 기획의 좋은 점, 기획이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본사에서 동료 실무자들에게 학생이 기획한 제품의 평가를 받아온 것이다.

정 매니저는 "저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제약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학생은 그렇지 않아서 재밌어요"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층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실무자는 잘 모르는데, 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정 매니저는 학생이 발표했던 '슈라면' 기획안을 보여줬다. 어린 시절 즐겨 했던 플래시게임 '슈의 라면'에서 착안해 신제품을 기획한 아이디어다. "저는 이런 게임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학생에게 이런 신선함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수강생 36명 중 상위 10명은 GS리테일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지예(아동가족학 2019) 씨는 "기업 현직자가 지속적인 피드백과 멘토링을 해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20분이 지났지만, 학생은 강의실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있을 상품 기획 제안서 모의 발표를 위해 조원과 의견을 나누기에 바빴다. 김현지(Hospitality경영학 2022) 씨는 "MD는 수많은 기획안 중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피드백 받고, 기획의 성과를 경험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취업전략 강좌 금융권 자소서 1:1 피드백

'금융권취업전략' 강좌에서는 전문성이 돋보였다.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발표하고, 강좌를 맡은 조창오 교수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과 첨삭을 해줬다. 조 교수는 금융권 현직에 8년 정도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은 네 경험을 더 드러내는 식으로 고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 그래도 저번보다 훨씬 나은 글이 됐네." 조 교수의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빠르게 수긍하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썼는지와 궁금한 점을 물었다.

학생들은 강좌가 굉장히 실전적

이고 금융권에 특화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백시현(경제학 2021) 씨는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수업인데, 그런 만큼 교수님께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 주신다"며 "패스·논패스 과목이라 시험 부담도 적어 알차게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예진(원예생명공학 2020) 씨는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금융권에 도전하는 고학번이 모여있으니 이 안에서 스테디도 꾸려서 하고 있다"며 "같이 준비하는 사람과 같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직자와의 연결도 유지돼 현직자 초청 강연도 수업 중에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에서 진심을 드러내라" 실전 전략 세우는 데 큰 도움

서류 면접 실전 준비반 'JSC'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중점으로 준비하는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으로, 미래인재센터 김준완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강의실에서는 실전 면접의 구체적인 조언이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차분히 하나씩

나눠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착하게 대답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지원 동기 ▲핵심 역량 ▲자신의 강점 등을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태도도 꼬집었다. "면접관 사이에서 '재는 왜 눈을 못 봐?'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눈을 피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진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김 교수는 직접 눈을 보기가 어렵다면 이마나 코 근처에 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장과 머리에 대한 세세한 조언도 있었다. "남학생이 재킷 없이 면접장에 오는 건 썩입니다. 옷은 같아도 재킷 하나만 걸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학생에게는 "머리를 너무 강하게 묶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돈하는 게 좋다"며 과도한 스타일링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진심은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패션MD 준비생이 패션잡지 『보그』를 꾸준히 읽은 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꼬리를 물어도 막힘이 없는데, 그게 합격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해당 강좌를 수강 중인 김유진(경영학 2021) 씨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면접장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며 "합격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어 구체적인 면접 준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